

B1. 윤동주,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滿二十四年一個
月)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1. '거울'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아 관찰의 도구로 화자에게 만족감을 부여한다.(o,x)
2. '그 어느 즐거운 날'은 광복의 그 날을 의미하며, 이 시점은 현재의 시점이다.(o,x)
3. '밤'은 자아성찰의 시간이며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는 상징적 소재이다.(o,x)
4. '즐거운 날'에 참회록을 쓰는 시기는 2연에 쓰는 참회의 글과 사건의 시제가 다르다.(o,x)
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작품은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창작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 문화적 현상 등 사회 문화적 맥락과의 관련 속에서 작품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독자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다라서도 작품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때 쓰였다는 점에서 상황의 구체적 의미를 통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

- ① '어느 왕조의 유물'이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 망국의 욕된 자아를 지칭하는 것이야.
- ② '내 얼굴'은 일제 강점기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아의 모습이겠어.
- ③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은 광복의 날이 되겠군.
- ④ '밤'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상황이며 반성의 시간이겠군.
- ⑤ '발바닥'은 1연의 파란 녹과 대응하여 당시 시대적 억압으로 인해 희생된 자들의 한을 드러내고 있군.
- ⑥ '파란 녹이 낀 거울'이 정상적 거울이 아니며 이는 당시의 부정적 역사 인식과 관련이 있군.

B2. 김기림, 「금붕어」 -작가연계

금붕어는 어항 밖 대기(大氣)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 생각한다.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 빨간 꽃이 파리 같은
꼬랑지를 폈다. 눈이 가락지처럼 빠져 나왔다.
인젠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 볼 게 다.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숙한 찬물을 뒤집어쓴다 떡가루를
흰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한다.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傳說)과 같은 소문도 있다.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딪혀 머리를 부수는 일이 없다.

얕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國境)임을 느끼고는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돌아선다. 지느러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서도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아침에 책상 위에 옮겨 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히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려본다. 꿈이라 가르쳐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大氣)를 건너서 지나해(支那海)의

한류(寒流)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쓴 매개를 와락와락

삼키고 싶다. 옥도(沃度)빛 해초의 산림 속을 검푸른 비늘을 입고

상어에게 쫓겨다녀 보고도 싶다.

금붕어는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도 더 큰 꿈을 오므려

죽여버려야 한다. 배설물의 침전처럼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연령만 쌓여 간다.

금붕어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만 할 고향이라 생각한다.

1. '화장한 따님'은 '금빛 비늘'과 유사한 시어로 화자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 경지를 의미한다.(O,X)
2. '떡가루'는 '배설물'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연계되어 의미 없는 삶에 대한 부정성을 함축하고 있다.(O,X)
3. 전설과 같은 소문을 통해 결국 금붕어가 추구해야 할 대상은 어항 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O,X)
4. '유리벽에 머리는 부수는 행위'는 굴종과 억압에 순응하는 것이다.(O,X)
5. 특정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하여 다시 바다로 가고 싶은 시적 화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o,x)

B3. 박재삼 「흥부 부부상」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붙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1. 명령형 어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O, X)
2. '문제'는 화제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시어이다.(O,X)
3. '거울면'은 시적 대상들이 서로 화합할 수 없을 드러내는 시어이다.(O,X)
4. 3연의 '본 웃음 물살'은 1연의 '웃음살'과 대응되어 부에 대한 흥부 부부의 기대감을 드러내는 상징적 시어로 보아야 한다.(O,X)

B4. 박목월, 「산도화1」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붉은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1. 색채이미지를 통해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O,X)
2.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는 시선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O,X)
3. 공간의 이동에 따라 느껴지는 화자의 절망감이 잘 드러나 있다.(O,X)
4. 정적인 가운데 동적인 이미지의 조화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O,X)
5. 각 연의 압축적 배행이 주제적 정서인 엄숙함을 강조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O,X)

B5. 이상, 「거울」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握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나는지금(至今)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
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事業)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요마는
또꽤닮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診察)할수없으니
꽤쉽습하오.
-이상, 「거울」

1. '거울'은 자아 간의 경계이며, 안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상 세계의 자아로 상정된다.(O,X)
2. 자아 간의 분열과 화해를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다.(o,x)

3. 거울 속의 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확신을 갖는 거울 밖의 나가 존재한다.(O,X)
4. 4연에서 알 수 있듯이 '거울'은 본래적 자아를 보게 하면서 동시에 본질적 자아에 대한 앎을 불충분하게 하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O,X)
5. 대상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답답해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O,X)

B1. x, x, o, o, 4

B2. X, O, X, X, X(화자의 소망이 아니라 대상의 소망)

B3. O, O, X, X

B4. O, X, X, O, X

B5. X, X, X, O, O(화자 자신도 대상의 범주 안에 들어감)